



故 김 상 철 『考試界』 발행인

---

〈추모사〉

김상철 月刊 『考試界』 발행인의 서거에 붙여

이 시 윤(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本誌 발행인이시고 서울특별시장을 지낸 김상철 박사는 지난 12월 13일 이십계도 65세의 일기로 세상을 하직 하였다. 우리는 한 시대의 인물을 잃은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슬픔에 접하여야만 했다. 김박사와는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 선후배로서, 같은 법관생활 그리고 고시계에서의 발행인과 편집위원의 관계 등 깊은 인연이 있고 평소에도 우의를 돈독히 유지하며 가치관을 공유해 온 터이므로 개인적으로 친한 벗을 잃은 비통과 애석의 아픔을 금할 수 없어 추도의 글을 올리기로 하였다.

그의 지나온 자취를 보면 서울고등학교 차석 졸업, 서울 법대 수석 합격, 사법시험 그리고 사법연수원 각 차석 졸업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학으로 법학박사의 취득 등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로 일관 하였다. 또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초임 출발한 「경판」 이기도 하였다. 원래 사법관이란 삼권분립의 민주정치의 산물이므로 사법권의 독립은 수호해야 할 본질적 가치이다. 김상철 판사는 이러한 법관으로서 투철한 소명의식 때문에 권위주의 정권을 크게 격노시킨 소신 있는 재판관을 한 바 있었다. 아마도 동아일보 군인납입과 관련되었던 사건으로 기억되며 재판장 양현 부장판사, 배석이 김판사와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박재승판사였던 것으로 우리나라 사법사에 두고 남을 큰 사건이었다. 이로 인하여 김판사는 원주 지원으로 좌천을 당하는 시련을 겪었다. 당시에 서울지방법원에 부장판사로 있었던 나를 찾아와 의논 하면서 법관직을 떠나야겠다는 뜻을 표하였다. 이에 만류보다도 잘 생각했다고 오히려 격려를 한 것이 기억난다.

이것은 분명히 「영광의 탈출」 이라고 보았으며 연못의 용이 바다를 향해 나가는 신천지의 전개로 보았기 때문이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변호사 개업과 더불어 인권변호사로서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서서 그 특유의 에너지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한편 법률잡지가 저조한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고시계」 잡지를 인수하며 법조직원자들에 길잡이와 청량제의 몫을 이어나갔다. 우리나라의 잡지계에서 형식상 편집위원은 있지만 편집회의는 없는 허울뿐인 것이 통례지만, 고시계에서는 반드시 김상철 발행인의 주관하에 월례회의를 열어 중지를 모으는 열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이제 기억에 새롭다. 특히 근래에 들어 열악한 상황하에서 정가도 오랜 동안 그대로 동결한채 수지타산을 떠난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기도 하였다.

1992년 YS정부 출범시에 초대내각구성 하면서 재야인물 물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장으로 이회장선배와 함께 서울특별시장으로 김상철 박사가 각 발탁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인사이었다. 그때 YS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주변 평가가 있었다.

포퓰리즘 때문에 비록 김시장의 길은 반전이 되었지만, 그 때부터 일반 국민앞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좌편향의 환상주의자들과 보다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투쟁을 떠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기억하기에도 탈북자 구호활동, 한미무호협회의 결성, 주간지 '미래한국'의 창간등 중단없는 활약을 보았다. 대한민국의 기저를 흔드는 세력과 용기있게 대결하며 이 나라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그 애국적이고 희생적인 공헌은 두고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서울법대 출신의 제도권내의 인물은 별론으로 하고, 재야의 파격적 인물로서 세 사람을 꼽는다. 한 분이 김택수 전국회부의장으로 서울 법대 법학도서관을 건립해주시는 장학사업가로도 유명한 분이고 또 한 분이 조영래 변호사로 망원동 수재민 피해를 법정 투쟁으로 구제한 집단 소송 변호사의 효사이기도 한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그리고는 「행동하는 지식」인 김상철변호사를 꼽았으며, 이분들은 언젠가 대권을 장악하리라 추단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생자필멸(生者必滅), 회자정리(會者定離)이다.

그러기 때문에 불노장생(不老長生)을 바랄 수 없지만 왜 세분 모두를 크게 개화하기전에 하늘이 일찍이 데려갔는지 하늘이 마냥 야속하고 원망스럽기만 하다.

김시장이 이제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그 집념과 역동성은 멈추지 아니하리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민주발전을 간곡하게 신에게 간청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남은 우리는 그 음덕을 볼 것이다. 이제 바라시던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이 나왔으니 안심하고 편히 잠드소서. 삼가 김시장의 명복을 빕니다.